

지역사회영양학의 역할 및 필요성

모 수 미

서울대 명예교수

Roles and Social Needs of Community Nutrition

Sumi Mo

A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지역사회영양학의 개념과 정의

커뮤니티 뉴트리션(community nutrition)이 우리말로 지역사회영양학이란 명칭 아래 학분으로 정착한 것은 70년대이며 아직 이 학문에 대한 개념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티는 무엇이나 하면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공동의 가치관과 이익을 나누면서 생활, 직업, 학문, 취미 등 모든 삶의 목표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생활공동체라는 사회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군중이 아닌 사회집단이므로 한 곳에 밀집된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저기 산재된 것도 공동성이 있는 특성으로 볼 때에는 이를 묶어서 하나의 특정지역사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는 저소득층의 집단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데 이를 총괄해서 low income community 즉 통솔적으로 달동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라 하면 단위나 범위나 크기를 연상케 합니다. 면, 군, 도 단위 또는 영동지역, 호남지역, 영남지역, 중부지역, 강원지역, 또는 서해안지역, 동해안지역, 남해안지역, 또는 남한지역, 북한지역으로 구획화해서 볼 수도 있고 한반도 전체와 연변의 조선족이 사는 지역까지도 묶어서 하나의 커뮤니티로 생각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는 자급자족하는 시대가 아니라 특히 인접한 나라로부터 많은 식량을 수입하거나 서로 바꾸어서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과 개량종자, 개발종

자, 농업축산 첨단기술까지 교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식사업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우리 식생활의 전통성과 국적성이 희미해져가는 요즈음 과거에 없던 비만증, 당뇨병, 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각종 성인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속에서 영양생태학이나 병인(病因)론적 접근 또는 정보과학적 접근, 행동과학적 접근, 관리과학적 접근 등으로 보면 공동된 문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웃나라까지도 포함해서 생활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의 크기와 범위는 마을에서부터 나라 전체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더욱 널리 확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즉 소생활공동체, 중생활공동체, 대생활공동체로서 공동으로 직면한 여러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의 개념이 확실해지면 지역사회영양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은 개인과 생활공동체인 집단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경, 경제, 농업, 보건, 교육문화적 특성을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으로 영양에 관련시키면서 영양개선의 계획과 실천과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이며 시스템과학(system science)」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학문의 분화와 지역사회영양학의 탄생

극히 최근까지 보편적으로 생각해 왔고 통념화된 영양학의 개념은 영양소에 의한 소화, 흡수, 대사과정과 생명

현상이었고 식품의 영양분석, 동물과 인체라는 개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로서 영양소 위주 또는 실험연구실 위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는 학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회, 경제, 환경, 농업, 교육심리, 문화적 요인과 영양을 관련 및 통합시켜(integration) 개인은 물론 집단과 지역사회 전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용영양학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학이란 학명의 지붕(shelter) 밑에 기초영양학과 응용영양학이란 학제적이며 이질적인 학문분야가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응용영양학 측면이 시스템 과학으로 발전하면서 이 학문의 분화는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의 발전은 발전할수록 세분화되는 것은 공통된 추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곳곳에는 빈곤과 영양결핍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인구가 증가일로에 있게 되자 FAO/WHO/UNICEF의 UN기구는 applied nutrition 프로그램을 이재국주민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개하는데 UN기구는 먼저 영국의 런던대학과 유대를 맺으면서 applied nutrition이란 새로운 혁명아래 시스템영양학적(system sciences on nutrition)인 접근으로 국제코스를 개설하여 세계 각국의 영양학 전문인을 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인은 유니세프장학생으로 런던대학에서 applied nutrition 국제코스를 마치고 1964년 귀국한 즉시 서울대 농대에 응용영양학이란 학명으로 새로운 교과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UNICEF/FAO의 후원으로 응용영양국가사업(ANP)을 만드는 동시에 응용영양지도사를 양성하고 전국에 배치하여 농촌 영양개선사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동안 수 명의 우리나라 영양학 전문인이 런던대학에서 응용영양학의 국제훈련을 이수하고 돌아와 응용영양학과 응용영양 국가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농촌진흥청이란 정부기관과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의 교과목에 응용영양학을 새로이 개설하는 요망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에 응용영양학의 명칭보다 지역사회영양학이란 명칭을 채택하여 신과목을 만든 동시에 지역사회영양학의 대학교과서를 출판하게 되었고 전국의 라디오망을 통해 방송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응용영양학의 학명을 개칭할 때 여러 가지 명칭이 발상되었으나(공중영양학, 국민영양학, 민

중영양학, 실천영양학, 보건영양학, 영양개선학, 종합영양학, 시스템영양학, 사회영양학 등등) 지역사회영양학이란 학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후 각 대학에서는 몇가지 명칭으로 이에 관한 교과과목이 개설되어 교과서도 몇가지 출판되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의 역할과 필요성

최근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의료의 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건강수준이 좋아져 장수사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학적으로도 사회고령화와 사회 노동력의 고령화로 새로운 건강, 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변화에 따른 환경의 오염과 파괴로 건강저해요인이 많아졌으며 풍요한 식생활 환경은 과거의 식습관과 식행동을 변용시켜 각종 식원성(食源性) 및 영양성질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문제는 개인단계로부터 지역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 더 국제화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으로부터 지역사회 집단, 국가 등으로 광범위한 수준까지 건강증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양학을 보다 과학적,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시스템영양학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사회영양학의 역할과 그 필요성이 더욱 더 강도 높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영양학은 개개인의 건강을 존중함은 물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건강문제를 중시하고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역사회영양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를 국내외에서 연구하고 현지에서 활약하는 전문인재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영양학 발전은 대학은 물론 병원, 보건기관, 산업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의 영양학, 생활개선지도사, 식품·영양연구소의 연구원, 각종 유관 정부기관 등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학자와 전문요원들의 활발한 참여에 의해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영양개선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유관기관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한편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영양학의 교육강화가 요구됩니다. 지역사회영양사업은 보건, 생활개선의 횡적협력도 촉구됩니다.

지역사회영양학회 창립대회에 즈음해서 이 학문과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